

# 체제·재정 안정...도약 기틀 마련

##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신년 인터뷰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올해 목표를 종단 조직의 안정,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전개, 스님 교육 시스템 강화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법상종은 올해 1월 총무원을 서울 망우리에서 평택 유가사로 이전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평택 총무원' 시대의 각오는?

-법상종은 종단 화합이 깨지면서 4백여 개에 달하던 종단 등록 사찰이 250개 줄어드는 등 한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새로 평택 총무원 시대를 열며 12월 종단을 사단법인화하는 등 제2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총무원 이전 및 유가사 개원 법회도 1월 13일 성대하게 봉행해 희망찬 새해인 시대에 맞는 종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식 상태이었던 종정에도 화합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 그동안의 종단 파행을 극복할 방안은?

-종단 안정과 교세 확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법상종은 종단차원에서 송탄 무봉사에 남골당 불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극복

하고 현재 80% 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전체 4만평 부지에 320평 규모 건물 두 동과 부속 건물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골당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면 종단 재정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는 종단 재단법인화도 추진

-평택으로 총무원을 이전한 것은 서해안 중심 포교를 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또 총무원 개원법회를 통해 종도들이 유가사와 총무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로 밟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적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화합되고 투명한 종단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종단으로 꾸어가고 싶습니다.

▲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님은 스님답고 정치는 정치인이다워야 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종교지도자인 스님은 구도자로서 정당한 자기 본분을 갖춰야 합니다. 스님들은 청정한 계율로써 국가를 이끌었던 진표용사의 정신을 되살려 마음의 근본자리를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편과 수단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수익사업 다각화로 재단법인 추진

### 불교교양대학 운영·스님 교육 강화

합니다. 사단법인화를 통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종단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성공했다면 재단법인화로 종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다질 생각입니다. 재단법인화의 관련도 재정적인 뒷받침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 올해 주력할 사업은?

우선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평택은 갈만한 사찰이 많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가, 참선, 수지침, 명리학 등을 개설해 신도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유가사를 교육원으로도 활용해 엄격한 승려교육도 실시할 생각입니다. 행사 교육을 제대



### 진각종, 스리랑카서 의료봉사

진각종·진각복지재단·열린사회로 구성된 의료·구호봉사단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파나투라 캄고다(Galgoda Camp) 사찰에 임시로 마련된 수용시설과 모다라윌라, 호빌라고델라, 네콤보 JGO센터 등에서 총 4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팀 7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11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통역 4명 등이 참가한 이번 의료 구호봉사에서 진각종은 스리랑카 주민 2000여명을 치료했다.

사진제공=진각종

## 조계종 스님 47명 복직 가능

### 승려분한 심사 결과...보류자 47명 추후 판정

조계종이 승려분한신고미필로 인한 승적제적·말소자 1회 구제를 위해 특별분한심사 결과, 47명이 복직 가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2003년 9월 23일 신설된 승려법 부칙 제2조(경과 조치)를 근거로 2004년 11월 1일부

터 30일까지 1개월간 승려분한신고미필로 한 뒤 교구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한 결과, 총 접수인원 105명 중 분한처리지자 47명, 사정무(판정)로 승적제적처리지자 8명, 보류자 47명, 대상자 아닌 3명의 결과가 나왔

다"고 2월 16일 발표했다.

보류자 47명 중 서류미비자는 서류를 보완하고, 사실사양미등락자는 사찰을 등록하며, 징계대상자 및 호법부 재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최종 복직 여부가 판정된다.

승려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직권제적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직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에 의한다'로 규정돼 있다.

남동우 기자

## 태고종 양산교구총무원 신설

### 총회 구성·총무원장 선출 등 조직정비

태고종 경남 양산교구총무원이 신설됐다.

경남 양산교구는 2월 16일 총무원 청사가 있는 광천사 명부전에서 초대 총무원장 무호 스님 취임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263번지 광천사 승모회관 4층에 설치된 양산교구총무원은 이에 앞서 양산시 소속 20여 개 사암 대표자들은 1월 20일 양산 광천사에서 사찰주지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7명의 초대 지방총회위원을 선출한 뒤, 지방총회를 구성하여 총무원장을 비롯한 선출

직 총무원 임원을 구성하는 등 총무원 조직구성을 마무리했다.

양산교구총무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원로위원장 월봉 △총무원장 무호 △부위원장 도오 △포교위원장 법성 △교육위원장 정각 △총무국장 현복 △교무국장 도성 △사회국장 일각 △규정국장 법중, 지방총회= △지방총회위원장 법성 △부의장 혜성 △사무국장 일각 △의원도성·법중·도성·도오, 지방사정원= △지방사정원장 혜성 스님.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양산 교구 설치를 승인했다.

김원우 기자

## "총무원 운영에 사찰동참 이끌터"

### 인터뷰 2 초대 총무원장 무호 스님



"양산불교사암연합회를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빠른 시일 내에 양산지역 사찰에서 종단과 총무원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총무원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6일 경남 양산교구 초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무호 스님(사진)은 조직확대 및 정비를 총무원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양산지역에 태고종 사찰이 20여곳에 불과하지만 올해내 60개 사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정기적인 교육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확고한 종단관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임직원들과 함께 각 사찰을 순방하여 총무원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기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밖에도 "총무원 주체로 대규모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태고종단과 양산교구총무원이 지역사회에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taego.org 다시 문입니다"

### 태고종, 3월1일 부터...종무행정·웹진 등 보강

종단홍보와 사이버포교를 담당할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org)가 3월 1일 재개통한다.(사진)

새로 개통된 태고종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종단안내, 종단소식, 불교탐구, 자료실, 총무행정, 승가입문, 커뮤니티, 태고웹진 등으로 꾸며졌다.

태고종 홈페이지에는 종단의 종조·종헌·종지종풍·종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태고웹진을 통해 종단의 각종 공지사항과 불교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총무원

과 각 사찰 및 산하단체들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무행정'과 '승가입문' 등 행정안내와 전산 시스템을 보강하고 사이버 1:1 서비스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도교육과 포교를 위해 '불교탐구' '자료실' '커뮤니티' 등의 콘텐츠를 통해 불교사건, 경전, 법문부터 각종 사진 및 동영상, 불교음악 등 방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태고종 전산원의 지안 스님은 "21세기 정보산업화 시대에 발맞춰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무행정 전



산화 및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편 했다"며 "통합 정보망이 구축되면 종도와 종단간의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 공단등 (비단등)

### 팔모조림등

### 팔모접등

### 중 등

###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 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